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 1주년 기념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본부장 이호철)는 3월29일 부산본사에서 정부와 정유기업, 수입기업, 관련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유 거래량이 국내 전체 소비량의 4-1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전자상거래 시장가격이 장외 석유시장의 지표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조기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03/29>